

20세기 푸에르토리코 소설의 정체성 탐구과정 연구*

김창민(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글의 순서

- I. 서론
- II. 진정한 자아를 찾아서
- III. 잃어버린 낙원
- IV. 역사의 재구성
- V. 미국의 침략에 대한 두가지 해석
- VI. 지배담론의 전복
- VII. 새로운 신화의 창조
- VIII. 결론

I. 서론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푸에르토리코 만큼 파란만장한 역사의 질곡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나라도 드물 것이다. 19세기 초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400 여년에 걸친 스페인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하였지만 푸에르토리코는 계속 스페인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1898년 미국의 통치권 아래 놓이는 운명을 맞이했다.

* 본 논문은 1997년도 교육부 학술연구 조성비(해외지역연구)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한편, 문화의 구성요소에 있어서 푸에르토리코는 주위의 쿠바나 도미니카 공화국처럼 흑인 문화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스페인 정복 초기에 카리브해 섬들에 살던 인디오들은 거의 전멸되었기 때문에 멕시코나 안데스 지역의 국가들처럼 인디오 문화의 뿌리가 남아 있지는 않다. 반면, 16세기 이후 카리브 섬들은 노예무역의 근거지였기에 아프리카 흑인문화가 많이 유입되어 그 지역 문화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이렇게 복잡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중남미 어느 국민들 보다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져오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면서 미국 문화가 대량 유입되고, 영어를 푸에르토리코의 공용어로 만들려는 미국의 노력에 따라 언어적 갈등마저 겪게 되면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더욱 증폭되었다.

본 연구는 푸에르토리코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20세기 푸에르토리코 소설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작은 섬나라 푸에르토리코의 현대사와 지적 풍토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진행은 역사적 비평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많은 경우 지식인들은 사상가이자 문필가였으며 정치적 지배계층이었기에 자신들의 사상을 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로 표현해 왔다. 그것은 스페인의 지배체제가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 19세기 초반부터 더욱 두드러졌으며 20세기 초반까지 유지되어 온 현상이었다.

푸에르토리코도 예외는 아니었다. 더구나 푸에르토리코는 타국가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숫자의 지식인들이 몇세기 동안 수도 산 환을 중심으로 긴밀한 교류를 유지해 왔으며, 오늘날까지도 그러한 지적 풍토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작은 섬나라라는 지형적 조건 이외에도, 아직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들의 고뇌가 반영된 독특한 지적 풍토라고 할 수도 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까지도 문학인들을 포함한 대부분 지식인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현실과 국가

의 운명이다. 따라서 문학작품은 중남미 어느 국가의 문학보다도 정치 사회적 현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문학이외의 담론들의 태도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고, 동시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도 푸에르토리코 소설이 국가적 정체성에 관해 어떠한 태도를 보여 왔으며 오늘날 푸에르토리코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정치, 사회적 상황과 지식인들의 인식의 변화라는 역사적 맥락 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진정한 자아를 찾아

중남미 자연주의의 대표적 작가로 꼽히는 마누엘 세노 간디아(Manuel Zeno Gandía, 1855-1930)의 소설 이전에 푸에르토리코문학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것은 19세기 초 독립을 이룩한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식민체제가 공고하게 지속된 결과이기도 하겠다. 세노 간디아는 당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의 필요성을 인식하던 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작품을 썼는데, 합리적이고 실증주의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면서도 일반 민중에 대한 우월감과 가부장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푸에르토리코 문학사가인 보샹(Juan José Beauchamp)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의 민중들을 “병들고 무기력한” 국민으로 묘사하는 세노 간디아는, 19세기말부터 커피 농장 중심의 경제체제가 미국자본의 대량유입에 따라 대규모 사탕수수 재배 체제로 변화해 감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기존의 대지주들의 심리와 인식태도를 대변하고 있다.¹⁾ 어찌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실주의적이면서도 자연주의적 요소가

1) 세노 간디아의 문학세계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José Juan Beauchamp의 *Imagen del puertorriqueño en la novela* (Editorial Universitaria, Universidad de Puerto Rico, 1976)와 José Luis Méndez의 “La estructura social y la literatura puertorriqueña” (*Casa de las Américas*, XX, núm. 115, julio-agosto, 1979)에서 동일하게 발견된다.

많이 발견되는 이 시기의 소설과 함께 본격적인 푸에르토리코 문학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스페인 혈통과 문화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한 민족주의와 결정론적 인종차별주의는 이 시기에 주요한 주제로 등장했고, 그 후 50년대 세대 작가들의 문학에까지 이어진다(Juan Angel Silén, 1977: 12-13).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전위주의와 모더니즘이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지나가고 말았다. 그것은 20세기 초 급변하던 국내 정치, 사회적 현실이 주관주의와 심미주의의 토양으로서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Francisco Manrique Cabrera, 1956: 230).

이어서 1930년대는 민족주의자들과 미국 식민세력 간의 대립이 치열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미국 자본의 사탕수수 재배를 통한 수탈과 기존의 커피 재배 농장의 쇠퇴라는 국내적 요인과 미국 경제의 불황이라는 대외적 요인이 겹쳐 푸에르토리코 경제가 도시와 농촌의 구별이 없이 대단히 피폐해 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30년대 세대 작가들의 소설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토착문화와 미국 문화의 갈등, 과거에 대한 동경, 가난과 역경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 그러한 현실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 비전 등 정치 사회적 테마들이 농촌의 풍광과 풍습을 배경으로 사실적으로 다루어졌다.

이 시기의 대표적 소설가인 엔리케 라게레(Enrique A. Laguerre, 1906-?)는 『불꽃』(*La llamarada*, 1936)와 『솔라르 몬또야』(*Solar Montoya*, 1941)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주된 배경으로 대지주와 소지주의 갈등과 일반민중들의 비참한 삶을 그리면서 조국의 왜곡된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숙취』(*La resaca*, 1949)는 19세기의 마지막 30년간을 시대적 배경으로, 스페인의 식민관리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그들에 대항해 독립을 쟁취하려다 결국은 새로 섬에 들어온 미국 군인들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주인공 돌로리또 몬또야의 삶을 그리고 있다. 그와 같은 운명은 루이스 에르난데스 아끼노(Luis Hernández Aquino)가 쓴 소설, 『구아시오에는 죽음이 다니고 있었다』(*La muerte anduvo por el Guasio*, 1959)의 주인공에게서도 발견된

다. 『화분 속의 판야나무』(*La ceiba en el tiesto*, 1956)의 주인공은 자기 어머니를 증오하면서 무기력증에 빠져 현실문제를 회피하는데, 푸에르토리코인의 전형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동시에 그는 마음으로는 민족주의를 지지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데, 이는 당시 민족주의자들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아이러니라는 해석을 낳기도 한다.²⁾

1950년대에는 미국 자본에 의한 대대적인 산업화를 통해서 사회구조와 가치관이 과거 농업사회에 비해 급격히 달라지게 되었다. 50년대 세대 작가들의 작품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초래하는 소외현상과 사회적 부작용을 비롯해, 미국에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푸에르토리코인들의 처참한 삶 등, 자본의 비인간적 생태와 그것의 부정적 결과를 고발한다. 동시에 그들은 갈수록 심화되는 미국 문화의 침투에 대항하는 하나의 방어전략으로 전통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인다. 자국문화에 대한 이러한 보수적 태도는 30년대 세대 작가들과 50년대 세대 작가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Edna Acosta-Belén, 1980: 133-136).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식민지들이 독립하는 국제 상황에 영향을 받아 이들 50년대 세대 작가들은 전 세대 작가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독립을 원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작가들의 태도는 소설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물질적 불평등과 연속적 피식민에 따른 정체성의 상실 따위가 작품의 주제로 자주 등장하게 된다. 이와 같은 독립주의 경향과 이분법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적 보수주의는 푸에르토리코를 새롭게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거대한 힘에 대항하는 하나의 자기 방어책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³⁾

2) 호세 루이스 멘데스는 작품에 나타나는 라게레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치주의자(완전한 독립보다는 미국의 정치적 위상을 인정하는 선에서 자치를 원하던 집단)들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한다(José Luis Méndez, Op. Cit., pp. 40-41).

3) 이와 관련된 50세대 작가들과 작품으로는 César Andreu Iglesias (1915-1976)의 *Los derrotados*(1956), *Una gota de tiempo*(1958), *El derrumbe*(1960), Luis Hernández Aquino의 *La muerte anduvo por el Guasio*, René Marqués(1919-79), *La vispera del*

항상 정치,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 왔던 푸에르토리코 소설은 60년대 이후에도 그러한 속성을 이어왔다. 대외적으로는 1960년대 미국의 반인종차별운동과 여성운동을 비롯한 여러 대중운동과 쿠바혁명,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월남전 참전반대운동, ROTC 반대운동을 비롯해, 미국에 완전합병을 주장하는 신진보당(Partido del Nuevo Progreso)의 선거를 통한 집권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푸에르토리코 문학도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한다. 즉 지금까지 스페인 식민지 아래서 지배계급과 그의 동조자들에 의해 심어졌고, 미국의 새로운 식민세력 앞에서 자기 방어논리로 지켜왔던 이 불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일반 민중적 입장에서 푸에르토리코르토리코의 현실과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고, 지금까지 감추어지고 회피해 왔던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다루어 보려는 태도를 갖기 시작한다.

새로운 시각을 가지려는 노력은 쿠바혁명 이후 마스주의와의 만남에 의해 더욱 자극을 받는다. 이 새로운 시각은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민족주의로부터 이데올로기적인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70년, <푸에르토리코 현실연구회 Centro de Estudios de la Realidad Puertorriqueña>의 결성은 이러한 지적 분위기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사건이었다. 이 모임은 역사가, 경제학자, 사회학자, 문학과 문화관련 종사자들이 모여 만든 공동연구 단체였다.⁴⁾ CEREP의

hombre(1959), Pedro Juan Soto(1928-)의 *Usmaíl*(1959), *Ardiente suelo, fría estación* (1961), *El francotirador*(1969), José Luis González(1926-)의 *Paisa: un relato de la emigración*(1950)등이 있다.

- 4) 여기에서 이루어진 주요 연구결과들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앙헬 긴페로 리베라(Angel G. Quintero Rivera)의 「노동투쟁」(*Lucha obrera*, 1971), 「식민 정치에 있어 계급갈등: 스페인과 미국하의 푸에르토리코(1874-1924)」(*Conflicto de clase en la política colonial: Puerto Rico bajo España y bajo los Estados Unidos*, 1974), 환 앙헬 실렌(Juan Angel Silén)의 「푸에르토리코인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 시각을 위하여」(*Hacia una nueva visión positiva del puertorriqueño*, 1970), 호세 루이스 멘테스의 「문학과 문화창작의 문제에 대한 마스주의 사회학」(*Sociología marxista de la literatura y problemas de la creación cultural*, 1974), 이사벨로 세논 크루스(Isabelo Zenón Cruz)의 「나르시스는 자신의 엉덩이를 발견한다」(*Narciso descubre su trasero*, 1975), 마르시아 리베라 긴페로(Marcia Rivera Quintero)의 「카리브에 있어 여성과 사회적 생산에 대한 자료목록」(*Bibliografía de la mujer y la producción social en el Caribe*, 1982), Manuel Maldonado-Denis의 「마스주의적 역사해석을 위하여」(*Hacia una interpretación marxista de la historia*, 1977) 등이 있다. CEREP에 대한 내용은 Juan Angel Silén의 *La*

연구물 가운데서 본 연구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호세 루이스 곤살레스(José Luis González)의 『4층으로 된 나라』(*El país de cuatro pisos*, 1980)이다. 역사와 문화 에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글은 스페인 정복기에서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푸에르토리코의 형성과정과 정체성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 사회적 연구들과 당시의 지적 분위기는 문학에도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소설에 있어서도 자국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음미해보려는 시도들이 나타난다. 『영웅 발타사르의 거부』(*La renuncia del héroe Baltasar*, 1974), 『니뇨 아빌레스의 음울한 밤』(*La noche oscura del Niño Avilés*, 1984) 등의 소설은 허구적 자료와 상상력을 동원하여 역사상 실재하지 않은 사건을 창조하고 있는 소설들이다. 동시에 근대사를 재구성한 소설로 호세 루이스 곤살레스의 『지난 시대의 발라드』(*Balada de otro tiempo*, 1978), 『도착』(*La llegada*, 1980), 70, 80년대 대표적 여성작가인 로사리오 페레(Rosario Ferré)의 『저주받은 사랑』(*Maldito amor*, 1986), 마갈리 가르시아 라미스 Magali García Ramis의 『세르히오 아저씨, 행복하세요』(*Felices días, tío Sergio*, 1986) 등이 있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푸에르토리코 지식인들의 새로운 시각은 어떤 것이며 그것들은 소설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그 속에 나타나는 푸에르토리코르토리코인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모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앞서 언급한 연구물들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고, 많은 사학자와 사회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곤살레스의 『4층으로 된 나라』를 살펴보고, 이어서 그의 소설 『도착』과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generación de escritores de 1970 en Puerto Rico(1950-1976), Editorial Cultural Inc.와 María Esther Ramos Rosado의 *La mujer negra en la literatura puertorriqueña: cuéntistica del 70*, tesis doctoral, 1991을 참조하였음.

Ⅲ. 잃어버린 낙원

곤살레스⁵⁾의 고백에 따르면(1982), 『4층으로 된 나라』는 ‘푸에르토리코 문화가 미국의 식민정책에 의해서 악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작금의 진행과정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여졌다고 한다. 이처럼 이 책의 주제는 명백하다.

그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미군이 점령할 당시의 푸에르토리코 문화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계급에 의해 나누어진 한 사회에는 지배 문화와 피지배 문화라는 두 개의 이질적인 문화가 상존하면서 서로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둘 사이에는 마치 본질적인 동질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재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나라의 “보편적 문화”나, “민족 문화”니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배문화를 주로 일컫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국군대가 스페인 군대를 물리치고 점령할 1898년 당시, 푸에르토리코는 미개한 사회였고, 독립 역시 온전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분리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지배계층은 완전한 독립을 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을 원치 않았고, 피식민 상태를 유지하되 현실의 개혁과 자치를 원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독립이 되기는 커녕 다시 미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자 자치를 주장하던 자유주의자들마저 보수주의로 돌아서 과거 스페인 식민시대를 “오랫동안 집단 전체가 행복했던 la vieja felicidad colectiva” 시기라고 불렀다는 것이다.⁶⁾

5) 호세 루이스 곤살레스는 푸에르토리코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자이자 소설가의 한 사람으로 현재 팔레히오 데 멕시코 Colegio de México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6) 1930, 40년대 독립운동의 아버지 Pedro Albizu Campos가 스페인 지배하에 있을 당시를 이렇게 표현했다. 곤살레스가 페드로 알비수 캄포를 보수주의자로 몰아세우는 데 대해, 사회학자이자 역사학자인 마누엘 말도나도 데니스(Maldonado Denis) 알비수 캄포스는 보수주의자라기보다는 급진적 민족주의자로 분류하는게 옳다고 주장한

사실, 지금까지 푸에르토리코 민족문화라는 것은 지주와 전문인들의 문화였으며, 노예나 소작인, 가내수공업자들의 문화는 민중문화의 진정한 의미를 은폐하려는 지배계층의 의도에 따라 민속이라는 이름으로 치부되었다고 보는 곤살레스는 지금까지 문화논의에서 소외되었던 민중문화의 위상을 회복시키려한다.

푸에르토리코 민중문화는 세가지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스페인 정복 당시 안티야스제도에 살던 인디오인 타이노, 노예로 끌려온 흑인, 그리고 스페인인의 문화가 그것들이다. 그 중에서 곤살레스는 흑인노예들의 문화가 민중문화의 기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정복이후 푸에르토리코 섬에 자신들이 찾던 자원이 희박하다는 것을 안 스페인인들은 곧 수적으로 많이 축소되었고, 대신 그 땅에 노예로 끌려온 흑인들은 자신들의 신분 여건 상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에 뿌리를 굳게 내렸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카나리아 제도를 중심으로 이주해 온 스페인 농부들도 이미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흑인들의 문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푸에르토리코의 음식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아프리카풍의 음식들을 보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안티야스 제도에 도착화된 이 흑인문화가 민중문화의 기층을 형성했다는 것이다(*El país de cuatro pisos*, 19쪽).⁷⁾

그가 주장하는 푸에르토리코 민중문화의 두 번째 층은 19세기 초반, 스페인 왕령(1815)의 보호를 받고자 중남미 각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도망온 중남미인들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에서 온 외국인들, 그리고 19세기 중반, 코르시카, 마요르카, 까탈란 등지에서 2차로 밀려 온 백인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들의 유입은 토착 농부들에 대한 새로운 착취와 수탈을 초래했다. 동시에 그들은 과거

다(Manuel Maldonado Denis, "En torno a *El país de cuatro pisos*", *Casa de las Américas*, Año XXIII, núm. 135, 1982, pp. 158-159).

7) 말도나도 데니스는 앞에 인용한 글에서, 곤살레스가 흑인문화의 비중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백인농민 문화의 비중을 너무 폄하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같은 책 152쪽)

출신지에서 하층민들이었기에 그들의 문화생산은 초라했음에도 불구하고 푸에르토리코섬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문화에 대해 위압적이었다. 따라서 두 집단 간의 심리적 문화적 갈등은 필연적이었다(*El país de cuatro pisos*, 24쪽).

따라서 미국이 점령할 때까지도 푸에르토리코 민중문화는 두 집단 간에 진정한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인종,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⁸⁾ 그리고 민중문화의 세 번째 층을 형성하게 할 미국의 침입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상층문화였지 민중문화는 아니며, 오히려 상층계급의 혼란과 세력약화의 틈을 타 하층문화는 더욱 입지가 강화되었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⁹⁾ 1898년 무렵,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를 원하던 사람들 중에서 반수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대국인 미국으로의 편입을 원했고, 그래서 많은 지주들이 미국의 침공을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에 편입되는 서곡이라고 간주하고 환영했던 것이다. 하지만 곧이어 미국의 수탈과 압제가 드러나자 그들은 환상에서 깨어나 보수적 민족주의자들로 돌아섰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 푸에르토리코의 문화는 인종, 사회, 경제적으로 동질한 하나의 문화였고, 대지주들은 항상 애국적이고 반제국주의자들이었다는 기존의 담론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한편, 하층계급은 미국의 침입을 자신들의 입지를 향상시키고 지주계급을 비롯한 상류층과의 관계를 청산할 기회로 생각하고 환영했다고 주장한다. 하류계급 뿐만아니라 상류계급 내에서도 소외당하던 부류, 특히 여성들은 푸에르토리코 문화의 미국화를 기존 지배문화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그 결과 가난한 계층과 흑인들 사이에서는 전통을 고수하려는 독립주의에 동조하는

8) 그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의 미래 정치구조에 대한 합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이러한 역사, 문화적인 분열이 오래 전부터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9) 말도나도 테니스는, 곤살레스가 푸에르토리코 문화의 미국화 과정을 역동적 근대화 과정으로 동일시하려는 시각을 보이면서, 독점과 소외, 도덕적 타락 등 미국 소비자본주의가 푸에르토리코 사회에 낳은 병폐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같은 책, 154쪽).

사람들이 적었고, 오히려 미국에 합병하려는 세력이 대다수를 이루었다는 설명이다. 그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El país de cuatro pisos*, 30쪽).

곤살레스의 주장에 따르면, 그 당시까지 푸에르토리코 민중문화는 인종적, 지리적 측면에서 크게 두가지의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스페인 식민 초기부터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토착화한 아프리카문화였고, 다른 하나는 흑인문화보다 늦게 산악지방을 중심으로 어느정도 독립적으로 형성, 유지되어 온 백인 농민들의 문화이다. 하지만 미국의 점령 후 해안지방의 설탕농업과 산업의 발전으로 산악지방의 인구가 점차 해안으로 내려오면서 두 문화는 활발한 접촉을 하게 되나 수적인 요인과 경제, 사회적인 요인으로 해서 아프리카문화의 뚜렷한 우세로 귀결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현상은 문학에는 충실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부분 문학가들이 몰락하는 지주계층이나 상류 출신이었기에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기 보다는 백인중심 문화를 우월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푸에르토리코의 정통문화로 미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힌다.¹⁰⁾

그는 독립이 필요한 문화적 이유는 보수주의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류의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푸에르토리코 민중문화의 보전과 올바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지식인들은 민중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버리고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El país de cuatro pisos*, 40쪽).

푸에르토리코 사회의 네 번째 층은 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밀어닥친 미국 자본에 의한 산업화, 그리고 기회주의적 대중주의와 함께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는 미국 자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

10) 60년대까지 보수적 지식인들은 푸에르토리코 문화를 “히바리스모(*jibarismo*: *Jibaro*는 백인 농민을 뜻함)”라고 명명하였다. 곤잘레스는 이러한 표현 속에는 그들의 사회적, 인종적 편견이 숨어 있다고 말한다(같은 책, 39쪽). 이미 히바로는 경제, 문화, 인종적으로 그나라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대신 경제적으로는 프로레타리아 계급에 속하며, 인종적으로 혼혈인이 진정한 푸에르토리코의 민중적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정에서 푸에르토리코 사회를 출구없는 막다른 골목에 밀어넣었고, 대중적 소외, 비도덕적인 의타심, 정치적 무관심, 무책임성이 만연하게 하였고, 결국은 사회전반의 붕괴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이 모든 불행은 식민의 역사가 필연적으로 가져온 결과이고, 이제 이 폐허를 역사적 교훈으로 직시하며 새로운 시작을 계획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자세히 살펴본 곤살레스의 주장은 당시 많은 젊은 사학자, 사회학자들이 공감하던 것이다. 비록 그의 이론이 많은 토론의 여지를 남기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지배담론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푸에르토리코 사회를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겠다. 동시에 이러한 견해는 그 후에 오는 수많은 연구들과 문화적 창작행위의 출발점이자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제, 곤살레스와 같은 역사, 사회적 시각이 어떻게 소설에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IV. 역사의 재구성

호세 루이스 곤살레스의 『도착』(*La llegada: crónica con ficción*)은 1898년 미국의 푸에르토리코 침공을 다룬 작품으로, 당시 미군의 도착과 스페인 군대의 패주를 바라보는 각 사회계층의 다양한 태도를 그리고 있다. '허구가 섞인 연대기'라는 모순적 부제가 이미 암시 하듯이, 이 소설은 연대기의 외양을 일부 갖추고 작품 내용의 역사적 사실성을 은연중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일반 소설에서와는 달리 당시의 군인과 주민, 여성들의 사진을 12장 게재함으로써 부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

미국의 침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허구적 인물들과¹¹⁾ 그

11) 물론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역사적 사건과 실재했던 인물들에 대한 언급도 자주 나타난다. Lares의 독립운동, 뉴욕에서의 푸에르토리코인의 독립운동, 쿠바

들의 행동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이 소설의 주된 의도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역사와 사회학, 문학의 관계에 대하여 작가가 언급한 부분을 상기하게 된다. 그는 역사와 사회학은 역사적 사건이나 현실이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반면, 문학은 구체적인 당시의 개인들이 그 사건과 현실을 어떻게 살고 경험하고 반응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이유로해서, 19세기의 프랑스 역사학자나 사회학자들의 연구가 발작(Balzac)이 쓴 소설의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역사, 사회적 연구는 소설창작에 도움을 주고 거꾸로 소설은 내밀한 시각을 통해 역사적 현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학문적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힌다(Arcadio Díaz Quiñones, 1977: 21).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이 소설의 내용이 푸에르토리코 근현대사에서 분수령이 되는 사건을 다루고 등장인물들이 당시 사회 각계 각층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 소설은 앞서 소개된 작가의 사회학적 연구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시도되었다는 추측을 하게 한다.

그렇다고 가정할 때 이 소설 속에서 그려지는 미국의 침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독자에게 다가오며, 이 소설을 통해 드러나는 내포적 작가의 시각은 어떤 것인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미국 침공 당시 야노 베르데(Llano verde)라는 마을에 사는 주민들 각계 각층의 반응을 그리고 있다. 동시에 자주 회상기법을 통하여 그들의 과거의 삶을 드러내고, 때에 따라서 지난 4세기 동안 스페인 식민지 하에서 그 계층이 어떻게 살아 왔는지를 요약해 드러내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침공이라는 군사적 사건이 제공하는 극적 긴장이나 그 전투에 참가한 인물들의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각계 각층의 반응이다.

독립운동가들과 푸에르토리코 독립운동가들 사이의 협약을 비롯한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과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운동가들이었던 Segundo Ruiz Betances, Barbosa de Bayamón, 쿠바의 José Martí, Antonio Maceo 등 역사적 실존인물들이 나온다.

우선 첫장에서 묘사하는 것은 스페인 군대와 미국 군대 양쪽에 지원병으로 참여하여 서로 양진영의 전위에 서서 대치하고 있는 푸에르토리코인들의 태도이다. 그 중에서, 스페인 군대에 지원한 사람들은 거의 전의(戰意)를 상실한 것으로 묘사된다(*La llegada*: p.12). 이 내용은 두가지 역사적 사실을 암시한다. 첫째 미국의 침공으로 푸에르토리코인은 두 진영으로 분열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미국측에 동조하는 세력이 더욱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또 다른 사실은, 미국에 협조하는 푸에르토리코르토리코인들도 결국은 과거에 스페인인들에 의해 이용되었듯이 미국에 이용당하는 희생자가 되리라는 암시이다.

그 마을의 저명인사인 후안 호세 베니페스는 자치주의자이고 그 지역 자유당(*Partido Liberal*)의 간부이다. 그는 미국의 침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연방의 한 주(州)가 될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또한 미연방에 편입된 뒤에도 언어와 풍습 등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있다. 즉 그는 당시 자치주의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다(*La llegada*: p. 22-23). 카톨릭과 스페인 식민지배체제를 상징하는 그 지역의 신부의 시각으로 볼 때 그는 “자유방임주의자이고, 프리메이슨 회원이며, ... 엉터리 지식인이다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위험 인물(*La llegada*: p. 16)”이다.¹²⁾

한편, 분리주의자인 아드리안 끌로메르는 독립만이 푸에르토리코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인물이다. 그는 한 때 경찰에 끌려가 고문도 받고 지금은 고독 속에 살고 있는 인물이지만 다른 동료들 처럼 도피이민을 가지 않고 쿠바의 독립전쟁 바람이 푸에르토리코에도 불어 올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간

12) 스페인 장교들과 마찬가지로 스페인 식민체제를 유지하려는 기존세력의 일부를 이루는 신부도 풍자적 유머가 섞인 바로크적 문체로 묘사된다. 이는 다른 인물들의 묘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상으로 작가의 시각이 은연중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는 다른 대부분의 장들이 사실적이고 기록문의 문체에 가깝다는 것을 감안 할 때 소설의 결함으로 지적될 소지도 있다. 하지만 다른 장들에서도 유머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체의 이질성이 다소 완화되기는 한다.

다. 미국의 침공이 자유와 문명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는 일반 대중들의 무지와 순진함을 한탄한다(*La llegada*: p. 33). 그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당시 대부분을 차지하던 자치주의자나 시류에 편승하려는 기회주의자들의 태도와 대조를 보인다.

또 다른 계층의 인물로 까시아나와 창녀 하나가 등장한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좋은 이미지를 미국병사들에게 남기기 위해 가슴에 미국 국기를 품고 거리에 모인 군중들 속에서 그들을 환영할 준비를 한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와는 전혀 무관심한 이들 소외된 최하층 사람들은 미국 군대의 도착이라는 역사적 사건 앞에서, 조국의 정치적 장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새로운 주인들에 대한 궁금증과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기대로 설레이고 있다(*La llegada*: p. 60).

동시에 이들 하층민들의 대화를 통해서 19세기 전반에 대량 이주해 온 마요르카, 코르시카인들을 비롯한 외국 이민자들이 어떻게 푸에르토리코 사회에서 정착해 갔으며, 기존 주민과 갈등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경제적 이권들을 차지했고, 왜 기존 주민들이 그들에 대해 원한을 지니게 되었는지가 암시되고 있다. 하층민들에게 있어서 미국 군대의 도착은 자신들을 착취했던 계층에 대해서 그때까지 쌓였던 빚을 청산할 기회를 의미했다.¹³⁾

그 지역의 시장인 세바스티안 까무냐스는 쇠퇴하는 스페인 지배체제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는 미국 군대의 도착 전날 밤, 다른 지역에서 약탈과 살인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지라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 뒤 도피처를 찾기 위해 마을 골목을 배회한다. 그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암시되는 것은 그가 비록 푸에르토리코에서 살고 한 마을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푸에르토리코인이라기 보다는 여전히 스페인인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나라의 인간들은, 설령 아프리카인들의 후손이 아닌 놈들까지도, 스페인이 이 땅에 거의 4세기 동안 마음껏 베풀어 준 스페인적인 고상함을 이어

13) 물론 소설이 진행되면서 이들의 기대는 순진함에서 나온 한낱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미국 군대의 지휘관의 독백을 통해 미국인들이 푸에르토리코에 대해 가지고 있던 무지와 편견, 제국주의적 저의와 계략이 풍자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받지 못했으니...”(*La llegada*: p. 62). 이 부분에서 바로 곤살레스가 『4층으로 된 나라』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19세기 서구에서 온 이민자들이 흔쾌히 토착인들과 융화되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목수인 까딸리노 로메로는 당시 의식화된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고 있다. 그는 미국 군대의 폭격으로 감옥에서 탈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노동운동가 산티아고 이글레시아스의 신변을 걱정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미국의 도래는 스페인 지배체제에서 억압받았던 노동운동이 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기도 했다.

마부로 등장하는 긴편 꼬레아는 그 땅에서 살아온 흑인들의 300년 역사를 드러내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온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역병으로 죽었다. 그녀는 12살 때 섬으로 끌려와 모진 노예생활을 했다. 그녀가 죽은 뒤 긴편은 다른 흑인 여자에 의해 키워졌고, 어릴 때부터 고된 육체노동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 없었다. 그가 45살이 되었을 때 지주의 아들은 그를 농장일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신의 마부로 삼았다. 그 뒤 1868년 쿠바의 독립전쟁 덕택에 푸에르토리코에도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고 그는 개혁정당의 핵심 인사인 주인의 도움으로 시청에 수위로 근무하게 된다. 하지만 인종적 편견 때문에 그에게 자유는 쉽사리 찾아오지 않았다. 그 사회를 지배하는 계층의 눈엔 그는 ‘깜둥이 긴편’일 뿐이었다. 하지만 긴편은 아프리카를 동경하거나 돌아가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다. 그는 노예제 폐지를 위해 싸웠던 당시 베탄세스나 바르보사 같은 지식인들을 기억하면서 미국의 침공이 푸에르토리코의 독립과 흑인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작가는 긴편의 삶과 생각을 통해 자신이 『4층으로 된 나라』에서 밝힌 정체성 형성과정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다시말해 흑인들은 자기들의 생활여건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들보다 더욱 그 섬에 대한 애착이 강했고, 그곳을 자신들의 유일한 삶의 터전으로 생각했기에 푸에르토리코 민중의 기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19세기에 밀려와 민중문화의 두 번째 층을 형성한 백인 이주민들과는 대

조된다는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La llegada*: p. 117).

미국 군대의 도착을 대하는 일반 대중들의 태도는 “극도의 무관심과 호기심”으로 묘사된다. 그 무리들 중엔 미국 국기를 가슴에 품고 있다가 미군이 지나갈 때 펼쳐 보임으로써 그들의 환심을 사려는 창녀들과 기회주의 정치인의 부인과 딸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미국의 국기를 펼치는 순간 구경을 하던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로 그 분위기에 편승을 한다. 그 창녀들을 위시한 기회주의적 여성들과 별생각없이 환호하는 민중들의 모습에서, 쉽게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는 자국 민중들의 투항주의를 풍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야노 베르데 마을에 스페인 국기가 내려지고 대신 미국의 국기가 게양되는 순간, 미군 지휘관에게 환심을 사려고 온갖 애를 쓰는 지배계층을 묘사함에 있어 곤살레스는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당시 대부분의 지배계층은 기회주의자로 미국의 지배를 자신들의 지위를 개선할 기회로 삼으려고 안달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미국의 진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자신들의 희망과 기대가 무너지자 반미적 보수주의자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인물들이 작가가 『4층으로 된 나라』에서 제시했던 당시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상황을 동일한 구조로 재현하고 있다.¹⁴⁾ 또한 60년대까지 대부분의 소설에서 미국의 침공을 모든 푸에르토리코인이 반대했으며 그들의 스페인 전통을 잃을까봐 걱정했다는 과거의 통념을 뿌리째 흔드는 새로운 전복적 시각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지배담론은 스페인 문화적 전통 속에서 살아가던 대부분의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두 당시 미국의 침공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는 것

14) 역사적 전환기를 맞은 각 계층의 태도를 명확하게 드러내겠다는 작가의 의도가 너무나 확고했던 나머지 등장인물들은 마치 정치적 태도만으로 성격지워진 꼭두각시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은 이 소설의 가장 큰 결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고, 미국의 지배하에서도 대중들은 스페인계 문화의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미국 문화와 대항해 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곤살레스의 사회학적 연구와 이 소설은 그러한 통념을 완전히 부정하는 새로운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V. 미국의 침략에 대한 두가지 해석

미국의 침공을 주된 내용으로 한 첫 번째 소설은 이미 1959년에 나왔다. 루이스 에르난데스 아끼노(Luis Hernández Aquino)의 『구아시오에는 죽음이 다니고 있었다』(*La muerte anduvo por el Guasio*)이다. 이 소설은 그 전투에 참여한 세 집단의 정치적, 군사적 행동을 다루고 있다. 스페인을 사랑하기에 스페인 군대에 지원하였고, 미국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는 뽀초 마차란과 그의 두 의형제들, 자국민의 무기력을 한탄하고 미국의 힘과 활력 그리고 그들의 신문명에 대해 감탄한 나머지 미군의 통역으로 일하는 로빠또 라고(Aquino, 1976: 58), 그리고 독립 쟁취를 위해 두 제국을 모두 거부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토마스 까세레스 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독립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제국주의 세력인 미국에 협조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조국을 배반하는 행위로 비춰진다(Aquino, 1976: 67).

이처럼 미국의 침공 시기에 푸에르토리코 국민들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그렸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앞에서 살펴본 『도착』이라는 소설과 유사한 점이 많다. 하지만 두 소설은 많은 점에 있어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¹⁵⁾ 그 중에서도 이 글의

15) 첫째, 『구아시오 ...』에서는 전투의 전개 상황이 극적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그것이 소설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 하지만 『도착』에서는 전투상황은 거의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주요 인물들이 민간인들로서 전쟁상황을 배경으로 이들의 행동과 심리가 소설의 주된 내용이 된다. 둘째, 『구아시오...』에서는 문체의 음악성, 서정성, 풍경과 민속이 소설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도착』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인물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개인적 심리만이

논점과 관계되는 것을 살펴보면, 『구아시오...』에서 화자는 독립주의자들에 대한 애정어린 묘사를 통해 은연중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미국 군대에 동조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어휘 선택에 있어 반감을 노출하고 있다.

반면, 『도착』에서는 구체제 세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부와 미군 장교에 대한 묘사가 어느 부분보다 풍자적 유머와 아이러니가 많다. 반면, 독립주의자 아드리안 끌로메르나, 미국의 도래를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는데 좋은 기회로 보고 있는 노동운동가 까탈리노 로메로, 흑인 수위 깐뎀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거나 조금 우호적인 어투를 보인다는 것을 감지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지난 수백년의 식민 역사와 미국의 점령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할 뿐 아니라, 푸에르토리코의 정체성을 이루는 다양한 계급적, 인종적 요소들을 새롭게 인식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60년대까지 많은 소설들은 스페인 지배체제 하에서 살던 시절을 인종과 계급간의 갈등도 없고 조화와 평화 속에 살던 이상향으로 그려내면서, 미국의 지배로 인해 모든 평화는 깨어지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미국적 요소에 대항에 살아가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이 『도착』은, 미국의 침공을 앞에 두고 스페인 지배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정치적 지배세력이나 지주계급을 비롯해, 19세기에 섬에 이주해와 경제적 특권을 누리면서 일반 민중들과는 잘 융화되지 않는 유럽 이민자들, 그리고 소수의 독립주의자들을 제외하면, 당시 대부분의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미국의 침공을 자유와 경제적 삶의 향상을 가져올 긍정적 사건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 작업은 미국의 지배를 미화하려는 의도보다는 지난 과거를 있었던 그대로 객관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고통스런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

부각되고 있다. 셋째, 『구아시오...』는 전통적인 소설기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반면, 『도착』은 현대적 소설기법을 문체와 구조에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는 올바른 길을 모색하려는 미래지향적인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VI. 지배담론의 전복

지배담론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난 과거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서 역사를 다시 쓰고, 오늘의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미래를 준비하려는 작가들의 의도는 다양한 테마와 형식을 통해서 반영되었다.

우선 지금까지 언급된 소설가 곤살레스의 1978년 작품인 『지난 시대의 발라드』(*Balada de otro tiempo*)도 이 부류에 속하는 소설이다. 이 작품은 1930년대의 푸에르토리코 사회를 배경으로, 한 여인의 불륜과 그에 대한 남편의 복수라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정작 작가의 주된 관심은 줄거리보다 공간적 배경이다. 커피 재배를 주도하는 산악지역과 사탕수수 재배를 기반으로 도시화되고 있는 해안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점에 대해 작가 자신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결국, 그 짧은 소설의 진정한 테마는 문제시되는 간통이 아니라, 바로 산악지역과 해안지역이라는 두 개의 차별되고, 상반되기까지 하는 두 지역이 공존하고 있다는 문제이다. 내가 <다른 시대의 발라드>를 쓰기 시작하면서, 난 푸에르토리코 문학에서 아직까지 도시와 시골의 대립에 관해서 최종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생각했다. 최종적인 언급은 비평서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소설이든, 시든, 희곡이든 뭐든, 문학작품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다른 시대의 발라드>를 쓰기 시작할 때 무의식 속에 있던 것이다. 즉 한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를 문학적으로 표현하려는 목적이었다. 그 이데올로기는 우리 문학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 우리의 사회생활,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의 집단적 심리에 영향을 미쳐왔다(Díaz Quiñones, 1977: 56-57).

도망간 자기 부인과 그녀의 정부(情夫)에게 복수하기 위해 길을

나선 로센도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작가는 1930년대 푸에르토리코의 자연과 인간의 삶을 그리고 있다. 전통적인 커피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악지방은 점차 사양길로 접어드는 분위기로 묘사되고, 미국의 점령 후 대대적인 사탕수수 재배를 기반으로 도시화되어 가는 해안지역은 활기 찬 모습으로 그려진다. 고지대에 사는 유럽계 백인들의 전통적인 춤모임이 보여주는 정체되고 규격화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해안도시의 거리와 선물집에서 자유분방하게 행동하는 흑인들과 혼혈인들의 모습은 활기가 넘친다.

또한 선물집에서 대화를 나누던 두 손님이 로센도의 출현을 목격하면서 문학에 관련지어 언급을 하는 부분에서도 두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암시하고 있다. 다시말해, 로센도가 루이스 토레스 요렌스(Luis Torres Lloréns, 1878-1944)의 작품에 나오는 인물같다고 조롱하면서, 30년대 고지대의 백인농민(히바로)을 푸에르토리코의 진정한 전형으로 여겼던 당시 문학가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미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30년대에 이르러 푸에르토리코의 진정한 민중의 전형은 해안에 사는 흑인혼혈이라는 것을 작가는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요렌스는 자기나름대로 한거야.- 대머리 후보자가 말했다. -게다가, 형편없이 한것도 아니고.

-그거 부인하는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 다른 것을 해야해.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러한 상황에서 갈수록 멀어지고 있으니까(*Balada de otro tiempo*, p. 128).

민중문학의 진정한 대상이 고지대의 백인 농민이나, 해안지대의 흑인혼혈이나를 두고 이 소설에서는 실존 시인 루이스 빨레스 마토스 본인으로 보이는 등장인물에 의해 민중문화의 영역으로 확대된다. 그는 “푸에르토리코의 문화가 유럽풍이기 보다는 아프리카풍이며, 정확히 말해 안티아스풍이고, 인종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혼혈문화”라고 단언한다(*Balada de otro tiempo*, p. 128). 그는 “푸에르토리코 흑인이 푸에르토리코인인 까닭은 서구화 되었기 때문이며, 그와 마

찬가지로 푸에르토리코 백인은 아프리카화 되었다”는 것이다(*Balada de otro tiempo*, p. 129). 그는 과거의 농촌을 배경으로 작품활동을 한 작가들의 생각에 반론을 제기한다.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난 토착민의 대부분은 서구문화와 서구세계의 후손들이 아니라 혼혈문화의 자손들이라는 주장이다. 그 동안 흑인과 그 문화가 문학에서 소외받아 왔다는 주장이다.¹⁶⁾ 그는 문학이 민중의 실체를 그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구 숫자로 보나, 그 섬을 유일한 삶의 터전으로 받아들이 수 밖에 없었던 흑인들의 현실적 조건과 정서 등을 보나, 푸에르토리코 문화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이면서도 지금까지 등한시 당한 흑인적 요소, 안티야스적 특징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지였다.

지난 과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품들 중에서 로사리오 페레 (Rosario Ferré, 1938-)의 『저주받은 사랑』은 과거 스페인 지배 시대를 미화하고 동경하는 지주계급 출신들의 보수적이고 과거 회귀적 태도에 대해 반기를 드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과거의 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기보다는 대지주 집안이 3대에 걸쳐 쇠락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저주받은 사랑의 비망록”에서 작가는 이 작품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역사를 미화시키려는 시각을 패러디하고, 권위와 정체성을 부여하는 힘을 그 신화로부터 박탈하기 위해서였다. 왜냐면 우리의 경우, 대지 위엔 (그리고 우리를 사이에 이루어진 사회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었고, 그가 제공하는 삶은 열악했기 때문이다(*Maldito amor*, p. 10).

나아가 그녀는 미국의 점령 이후 급격히 과거의 커피와 담배 농업

16) 이러한 내용은 실제로 1932년, 호세 디에고 빠드로(José I. de Diego Padró, 1899-1974)와 루이스 팔레스 마토스(Luis Palés Matos, 1898-1959) 사이에 있어왔던 문학논쟁을 상기시킨다. 당시 푸에르토리코 문화에 있어 아프리카적 전통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현실을 문학에 반영해야 한다는 마토스의 주장에 맞서, 요렌스의 문학을 옹호하던 디에고는 푸에르토리코의 문학인들이 안티야스의 분위기를 초월해서 보다 보편적이고 고상하게 표현해야한다는 주장을 했다(José I. de Diego Padró, "Antillanismo, criollismo, negroidismo", *Luis Palés Matos y su trasunto poético*, pp. 96-97).

이 붕괴하고 거대 기업화한 사탕수수 농업을 바탕으로 경제가 재편되고, 40년대부터 빠른 속도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친 푸에르토리코에서 60년대에 이르기까지 커피농장이나 사탕수수 농장을 배경으로 한 농촌의 풍경을 낭만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현실감이 없는 일이라고 비난한다(*Maldito amor*, p. 10)¹⁷⁾. 이러한 시각을 지닌 작가가 과거 지배담론의 탈신화화를 통해서 진정한 정체성 확립하려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과거 지배계급의 신화를 전복하는 작업은 ‘소설 속에 소설’을 삽입하는 기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본 이야기의 중심은 데 라 바예(De La Valle) 지주집안의 3대에 걸친 여성들의 이야기다. 이 주된 줄거리 사이사이에 인용부호로 구분되는 또 다른 소설이 있다. 그것은 데 라 바예 가문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로서, 역시 지배계급 출신인 에르메네힐도라는 등장인물이 쓰는 소설이다. 에르메네힐도의 소설에서 데 라 바예 가족의 가문과 혈통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바깥소설의 인물들이자 데 라 바예 집안의 여성들인 라우라와 글로리아의 독설과 냉소적 목소리를 통해서 모두가 거짓이고 위선이었음이 드러난다. 또한 에르메네힐도의 소설에서 고상한 인품의 소유자이며 애국지사로서 그려지던 우발디노씨는 라우라와 글로리아의 서술을 통해서 변절하고 타락한 지배계급의 모습으로 전락된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식민지 지배계급 언술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에르메네힐도의 소설은 완전히 희화화되기에 이른다. 에르메네힐도의 소설 첫부분에서 그리듯, 목가적 분위기 속에서 모든 계층과 인종이 조화롭게 살던 천국같은 땅으로 여겨지던 푸에르토리코의 과거는 이제 가난과 질병과 차별과 불평등이 지배하던 지옥같은 시절로 폭로된다. 지배계급의 신화는 허물어지고 그들의 위선적 태도와 시각은 조롱의 대상이 된다. 지배계급 언술의 거짓은 벗겨지고 기만

17) 그녀는 중남미 대부분 국가들의 문학은 각자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주로 자신들의 독특한 자연환경에 집착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문학에서는 오랫동안 팜파 Pampa를 언급해왔고, 베네수엘라에서는 평원 Llano를, 멕시코에서는 황량한 벌판 Páramo을, 콜롬비아에서는 밀림 Jungla을 그려왔다는 것이다.

과 억압의 희생물이었던 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 나선다. 그것은 혼혈인 글로리아가 흑인 몸종 띠띠나와 함께 온갖 가식과 위선과 차별의 온상이었으며 왜곡된 역사의 상징이었던 대지주의 농장을 불태우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하게 암시되고 있듯이 기존 가치와 질서에 대한 전면적 거부이며, 동시에 불 속에 갇힌 에르메네힐도의 상황이 암시하듯 지배언술의 종말이다. 그것은 그녀들이 불을 지르며 부르는 노래의 가사처럼 목소리를 잃었던 새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일이다. 진정한 자아를 찾아나서는 일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20세기 전반의 푸에르토리코 문학에서 스페인 전통문화와 미국문화와의 갈등은 언제나 주요한 소재가 되어왔다. 항상 스페인 문화는 전통적이고 긍정적으로, 자신들의 문화의 근원이기에 미국문화에 대항해서 지켜나가야 할 것으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까르멜로 로드리게스 토레스(Carmelo Rodríguez Torres, 1941-)의 『그 시해(弑害) 이후의 20세기』(*Veinte siglos después del homicidio*, 1971)와 에밀리오 디아스 발까르셀(Emilio Díaz Valcárcel, 1929-)의 『삼월의 단상들』(*Figuraciones en el mes de marzo*, 1972)은 푸에르토리코의 정복시기부터 스페인의 위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려는 의도를 가진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16세기 푸에르토리코 정복자들이 스페인왕에게 보낸 편지등 역사적 기록들을 몽타쥬 기법으로 삽입하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스페인인들은 신대륙에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고 온 이민자들이 아니라 천연자원을 약탈하러 온 약탈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Rodríguez Torres, 1980: 42).

『삼월의 단상들』에서는 스페인으로 자의적 망명을 떠난 푸에르토리코 젊은 지식인이 마드리드에 살면서 스페인과 자기 나라의 관계에 대해 재고하는 기회를 갖는다. 그는, 스페인 사람들에게 있어 중남미는 일확천금을 벌어들이기 위해 잠시 머물렀던 곳이지 결코 그곳에 뿌리를 내리려고 했던 곳이 아니며, 오늘날 스페인 사람들은 중남미인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중남미인들이 스페인에 대해서 “어머니의 나라”라고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실제로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진 생각인지를 드러내고 있다(Díaz Valcárcel, *Figuraciones en el mes de marzo*: 93-94).

이와 같이, 오늘날의 푸에르토리코 소설들은 스페인과 관련된 신화들을 해체하고 과거를 재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탐구하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탐색하고 있다.

VII. 새로운 신화의 창조

1974년에 푸에르토리코 문학 사상 처음으로 흑인반란을 주제로 한 소설이 등장한다. 에드가르도 로드리게스 홀리아(Edgardo Rodríguez Juliá, 1946-)의 『영웅 발타사르의 거부』(*La renuncia del héroe Baltasar*)는 처음으로 푸에르토리코의 흑인과 백인간의 첨예한 갈등을 본격적으로 다룬 소설이다. 물론 흑인이 푸에르토리코 문학에 인물로 등장한 것은 1849년이였다. 하지만 당시 문학에 등장하는 흑인들은 풍속적 요소의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나온 단편이나 장편소설에서도 인종차별과 갈등 문제는 작품의 부차적인 요소에 머물러 있었다.¹⁸⁾

예를 들어, 법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인종차별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작품 중간에 상기시키는 소설로는 엔리케 라게레의 『불길』(1935)과 『숙취』(1949)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동일 작가의 『손가락』(*Los dedos de la mano*, 1951), 『불과 그 공기』(*El fuego y su aire*, 1970) 등의 소설은 미국 뉴욕에서 푸에르토리코인이 겪는 인종차별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라게레의 작품에서 인종차별문제는 미국의 식민통치와 관계있는 것처럼 비추어진다. 이는 50년대 작가, 페드로 후안 소토(Pedro Juan Soto, 1928-)의

18) 푸에르토리코의 문학에 있어 흑인과 관련된 테마를 정리한 글로서 Socorro Girón, "El tema del negro en la literatura puertorriqueña", *Asomante*, Puerto Rico, junio, 1982, Año II, núm. 1 참조. 소설보다는 주로 시와 민속음악, 단편소설등에 나타나 는 흑인 요소에 대해서 고찰했다.

대표작 『우스마일』(Usmail)¹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작품에서는 푸에르토리코인들 사이의 인종차별을 다루기보다는 흑인이나 흑인혼혈인 푸에르토리코인이 미국인 앞에서 자신의 피부색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고 부당한 처우를 받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푸에르토리코인의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미국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것보다는 민족적이고 전통적인 것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보존해야 한다는 논리가 뒤따르게 마련이었다.

19세기 후반까지 노예제도가 존속하고 있었고, 인구의 대부분이 흑인 혼혈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록 정도가 갈수록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까지 인종차별이 은밀하게 존재하는 푸에르토리코 사회에서, 흑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인종갈등을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다룬 소설이 1974년에 처음으로 나왔다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²⁰⁾ 지금까지 수백년간 공식담론에서 금지되고 잊혀져 왔던 문제

19) ‘우스마일’ Usmail은 주인공 청년의 이름이다. 그 이름은, 푸에르토리코에 주둔한 미국병사가 자신의 성적 노리개였던 푸에르토리코 처녀에게 임신을 시킨 뒤 본국으로 떠나버리자, 그녀는 그 미군에 대한 소식을 알기위해 매일 우체국(U. S. Mail) 앞에서 우편배낭을 기다리며 서성거렸기에 그녀의 아기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이 소설은 주인공 우스마일의 탄생과 성장과정을 그리면서 푸에르토리코인의 비극적 운명과 정체성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20) 푸에르토리코의 흑인 노예의 역사는 1513년부터 시작된다. 당시 섬에 살던 원주민 타이노 족은 정복과정에서 죽거나 다른 카리브 섬으로 흩어졌다. 17, 18세기 동안 열악한 농업 경제 여건 속에서 흑인노예들이 경제적 기여는 절대적이었다. 19세기 초반 유럽 농업 이민이 대량 유입되면서 1830년대를 기점으로 흑인 노예의 수입은 차츰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1848년 마르띠니까 섬에서의 흑인 반란 이후 후안 프림 Juan Prim 제독의 포고령에 따라 흑인들에 대한 통제와 탄압은 극에 달했으나 그를 이은 페수엘라 Pezuela 총독에 의해 흑인들에 대한 통제도 완화되고 자유시민권을 획득하는 비용도 줄어들었다. 19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자유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백인들이 수도 늘어나면서 노예제 폐지주의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1873년 중남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아주 늦게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 각 분야에서 인종차별은 은밀하게 유지되었다. 그리고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지배계층에 속하는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푸에 사회에서의 인종차별문제를 은폐하거나 도외시하려는 노력들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푸에르토리코의 경제 사회적 변화와 1960년대 미국의 인권운동과 반인종차별운동의 영향으로 인종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논의가 일기시작했고 마침내 이사벨로 제네 크루스 Isabelo Zenón Cruz는 <나르시스는 자신의 엉덩이를 발견한다>라는 책을 통해서 푸에르토리코 흑인의 역사와 오늘날 사회 각부분에서 지속되고 있는 인종차별문제를 통계자료를 통해서 살살이 밝혀내고 있다. (참고문헌: 1)Maxime Gordon, “Cultural Aspect of Puerto

를 다루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소설은 푸에르토리코 문학사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된다. 물론 이러한 소설의 등장은 당시 사회와 지성계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짐작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 소설은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소설이라기보다 상상력에 바탕을 둔 가상소설이다. 다시말해 소설의 역사적 배경이되는 18세기에 푸에르토리코는 흑인반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18세기 푸에르토리코 흑인반란을 다루고 있다. 더군다나 작품은 소설의 비현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서술자를 역사학자로 하고, 소설은 그 역사학자의 세 차례에 걸친 발표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발파사르와 관련된 가상의 18세기 그림들, 시인, 드라마 작가가 등장한다. 역사적 근거를 전혀 갖지 못한 소재에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허구적인 역사학자와 그의 학술발표 내용을 소설적 장치로 이용하는 것이다.

주인공 발파사르 몬파네스는 1734년에 일어났던 흑인 봉기의 지도자였던 라몬 몬파네스의 아들이다. 발파사르는 당시 푸에르토리코의 주교인 라라의 정치적 계략에 의해 푸에르토리코 내각 대신의 딸 호세피나 브라츠와 결혼을 하게된다. 주교의 의도는 흑인 민중들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라몬의 아들을 백인 지배계층 딸과 결혼시킴으로써 흑인들에게 인종적 평등이 실현되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그들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반란의 씨앗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흑인민중들의 입장에서선 발파사르가 백인 압제자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처형당한 그의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며, 동시에 흑인 민중과 흑인 문화에 대한 거부로 여겨질 수 있었다. 왜 발파사르는 그러한 배신행위를 했던가?

발파사르는 자신의 아버지가 반란 주모자로 처형당할 당시 흑인

Rico's Race Problem", (Traducido por Ilasa Molinari Torr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15, n.3, 1950; 2)Luis M Díaz Soler, "La esclavitud negra en Puerto Rico" en *Veinte conferencias*, Editorial del Departamento de Instrucción Pública, 1957 ; 3)Tomás Blanco, *El prejuicio racial en Puerto Rico*, con el estudio preliminar de Arcadio Díaz Quiñones, Río Piedras, Editorial Huracán, 1985 ; 4)Isabel Zenón Cruz, *Narciso descubre su trasero*, vol 1,2, Humacao, Puerto Rico, Editorial Furdí, 1975.)

민중들이 전혀 저항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무기력과 무관심으로 일관한 데 대해서 흑인들을 증오해 왔었다. 그래서 흑인민중과 그들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그러한 결혼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흑인들에게 복수를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복수는 동시에 자기 아버지의 뜻을 배신하는 것이었기에 심리적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Edgardo Rodríguez Juliá, 1986: 25).

한편 주교의 생각은 백인 지배계층의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백인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흑인 반란의 주모자 아들과 백인 지배계급 딸의 결혼은 수치스런 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주교는 결혼식이 끝나면 발파사르를 감옥에 가둘 것이라고 하며 백인 지배층을 설득하였다. 하지만 발파사르는 순순히 주교와 백인들의 의도대로 따르질 않았다. 그 또한 영리한 지라 자기 결혼식을 백인들에게 모욕을 줄 기회로 삼고자, 자기 신부를 끌고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거리에 몰려나온 흑인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광란의 축제분위기를 이끌어 나갔다. 호세피나를 둘러싼 흑인들의 행동과 연사는 흑인 여자들이 백인들에게 유린 당해 온 것에 대해 복수라도 하려는 것처럼 보였다(Edgardo Rodríguez Juliá, 1986: 53). 결국 발파사르를 투옥시키려다가는 흑인의 반란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상황이 되었기에 주교의 의도는 빗나가고 말았다. 발파사르는 타고난 정치적 수완을 발휘했고, 첫 대결에서 백인들의 의표를 찌르며, 두 종족사이의 중재자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흑인들과 백인들에게 동시에 복수를 한 셈이 되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난후 발파사르는 호세피나와 육체적 부부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 자신이 육체적 쾌락을 찾는 행위를 하는 동안 백인 부인이 자신을 경멸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결국 그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채, 발파사르는 두 번째의 거부, 즉 부인과 육체적 관계를 거부한다. 그것은 자기 종족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노력이었다. 오히려 발파사르는 자기 부인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침실 한쪽 벽에 옆방을 엿볼 수 있는 창을 만들어 놓고 자신은 그 방에서 다른 여자들과 육체적 쾌락에 빠짐으로써 부인을

육체적 유혹에 굴복시켜, 자신을 경멸하는 태도를 갖지않게 하면서 부부의 육체관계를 성사시키려는 의도였다. 이처럼 발따사르의 복수심은 병적인 단계로 진전되어 갔다.

마약에 빠져 지내던 발따사르는 스페인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온갖 함정으로 된 환상적인 정원을 만들기도 했다. 결국 1766년 발따사르는 종교재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고, 라라주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옥된다. 그리고 그의 투옥은 흑인들의 반란을 촉발시켰고, 6개월간 살육과 파괴가 지속되었다. 그 비극을 중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발따사르가 다시 그 섬의 통치자로 복귀하는 것이었고, 마침내 스페인의 종교재판에서 그를 복위시키도록 허락했다. 라라 주교는 다시 발따사르에게 복귀를 설득했으나 그는 “자신의 직책을 다시 맡기를 거부했다. 정치적 신념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동족에 대한 연대의식 때문도 아니었다.”(Edgardo Rodríguez Juliá, 1986: 85) 발따사르를 설득하려는 라라주교의 편지 속에는 사회제도와 기독교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당신에겐 내가 가지고 있는 통치권이나 교권이 인간들을 속박하는 감옥으로 여겨지겠지. 거짓에 따른 또 다른 거짓말로 만들어진 감옥이지만, 인간들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 수 많은 세월 동안 필요했던 거짓말들이요. 우리 선한 기독교도들이 자비로운 거짓말이라고 여기는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가공할 짐승으로 변하지 않게 할 유일한 보장책이요. 당신은 오로지 진실을 구하겠다는 의도로 그 자비를 거부하고 있소. 그리스도의 아주 단순하고 진실한 말씀마저 거부하고, 하느님을 배제한 신학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방황하고 있소. ... 자비란 하느님이 자신이 창조한 것에 대해 후회하기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고 당신은 생각하겠지. 무심코 한 행위가 끔찍하게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후회하는 하느님에게서. 그렇소. 우리 신학에서 삶이란 박해 중 가장 잔인한 것이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장난을 치던 신의 바보같은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니까(Edgardo Rodríguez Juliá, 1986: 91-92).

즉 스페인 식민 통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독교에 대한 발따사르의 거부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발따사르는 통찰력 있는 자였으나

세상에 대한 자기 나름의 통찰력이 발하는 빛에 눈멀어 있었다. 그의 고뇌어린 실존은 세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향한 여정이었다.” (Edgardo Rodríguez Juliá, 1986: 88-89)라고 서술자인 역사가는 평가를 내린다. 발파사르는 자신의 거부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파사르의 거부는 세상의 종말을 의도하지는 않는다. 기독교의 하느님을 거부하고 하느님이 만든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 파괴는 새로운 건설, 신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원했던 것이다.

발파사르- 나는 하느님 없이 살아 갈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믿는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은 최상의 자유 행위로서 자신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끝장내는 것을 선호하리라고 믿는다. 그럼으로써 창조라는 신의 가장 중대한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으리라....(Edgardo Rodríguez Juliá, 1986: 115)²¹⁾

결국 발파사르는 종족과 아버지의 꿈을 버린 것이 아니다. 인종차별의 문제를 기존의 세계를 파괴시킴으로써 근본적으로 해결하길 꿈꾸었던 것이다. 그래서 발파사르는 인간에게 부여된 기존의 조건을 모두 거부하기에 이른 것이다. 인종문제가 식민통치라는 정치, 사회적인 테두리를 넘어 형이상학적인 관점으로 확대된 것이다.

인종차별의 문제에 관해 이전의 작품들에서 암시된 해결책은, 흑인적인 것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현실적 정체성을 자부심을 가지고 긍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영웅 발파사르의 거부』에서는, 흑인과 백인을 만들고,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만든 신을 거부하는 것이고, 신이 만든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절망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것은 아니다.

로드리게스 홀리아는 1984년 다시 18세기를 배경으로한 소설,

21) 이 부분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시인이자 극작가 알레한드로 홀리아 마린 Alejandro Juliá Marín의 드라마 <영웅의 거부>에 나오는 대화의 일부이다.

『니뇨 아빌레스의 어두운 밤』(*La noche oscura del Niño Avilés*)을 출간한다.²²⁾ 이 소설은 푸에르토리코인의 근본적 특성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18세기 푸에르토리코 사회를 창조해 내고 있다. 물론 이 소설도 앞의 작품처럼 거짓 사료(史料)를 동원하여, 건축가이자 이단 수도승인 아빌레스의 출생과 그에 의해 만들어진 흑인 집단 거주지, 두 차례에 걸친 흑인 반란과 수도 산환의 점령등 가상의 역사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한 조작은 앞 소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술자로 나오는 사학자 알레한드로 까달소 Alejandro Cadalso의 서문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1913년 많은 문헌이 발견되었고 그림첩과 다른 사료들이 발견되었는데, 그것들은 흑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카리브해의 호반도시 새로운 베네치아 Nueva Venecia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흑인 호반도시의 존재가 공식역사에서 지워진 것은 시몬 볼리바르의 해방운동에 겁먹은 스페인 정부가 푸에르토리코 민중들이 그러한 이상적 자유도시가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Edgardo Rodríguez Juliá, 1991: xii).

앞 소설과 비슷한 기법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도 독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되돌아 보고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니뇨 아빌레스의 어두운 밤』은 푸에르토리코 문화에 대한 포괄적 알레고리라고 평가받기도 한다(Anibal González, 1986: 585-586).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자국 문화의 이상적 모델에 대해서 각자의 비전을 개진한다. 아프리카 문화 중심적인 이상을 가진 오바팔, 스페인풍의 중세적 취향의 문화를 역설하는 주교 프레스팔라시오스, 순수한 이상향을 주

22) 이 작가는 이 소설외에도 연대기와 수필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작품 *Campeche o los diablejos de la melancolía*(1986)를 출판한다. 작가 본인은 자신이 18세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 “나의 선생님들께서는 푸에르토리코에 있어서 18세기는 지금까지 신비롭고 텅비어 있는 세기로 인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한 의견은 나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었고, 나는 18세기에서 우리의 민족성의 진정한 근원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우리 역사의 이미지를 전복시키는 일은 흥미로운 것이었다.” Carmen Dolores Trelles, “La ambigüedad temática en Rodríguez Juliá”, *El mundo*(suplemento En Grande), 6 de diciembre de 1987, p. 10.

장하는 익명의 화자, 토착 백인들 관점의 유토피아를 주장하는 베네디아스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1930년대 푸에르토리코 문화의 정체성에 관해서 벌어진 논쟁에서 여러 지식인들이 주장한 생각들을 유추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작품과 앞의 작품을 통해서 판단할 때, 작가는 문화란 불확실한 실체로서 한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 사이의 마찰과 충돌과 결합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이, 이 소설은 다양한 시각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재하지 않은 흑인반란과 흑인도시의 존재를 역사화하려는 시도를 통해,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있어 흑인의 존재와 의미를 재평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가상의 역사를 만듬으로써 지금까지 권위적으로 존재해 왔던 공식 역사는 그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현실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정체성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VIII. 결론

푸에르토리코 문학인들의 정체성 탐구과정은 치열하다. 그들은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400여년을 지배한 스페인문화, 그 후 100여년을 지배한 미국문화, 500여년전부터 그 땅에 살아온 흑인문화가 이식, 전이, 충돌, 동화 등의 다양한 과정을 거쳐왔고, 아직도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특수한 나라가 바로 푸에르토리코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개인적,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그 섬을 미국이 점령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것은 수 백년 동안 절대권력을 지니고 있던 스페인 중심의 지배담론이 미국의 점령이라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기반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었다.

20세기 초반의 소설에서 푸에르토리코인의 정체성은 스페인문화에 편향된 보수적 민족주의자들의 담론에 의해 규정되었다. 400여년의 스페인 통치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스페인 중심의 지배담론이 오히려 미국의 지배로 한층 더 강화되는 역설적인 현상이었다. 그것은 당시 미국의 통치가 자신들의 입지를 갈수록 약화시킴에 따라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것이기도 했고, 한편으론 미국자본의 횡포와 그 폐해로부터 자신들과 대중들을 방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기도 했다. 따라서 그 시기의 소설은 미국문화와 스페인계 전통문화 사이의 갈등에 초점을 모으고 있었다. 하물며 수 백년간 존속되었던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백인종의 미국인과 흑인혼혈의 푸에르토리코인 사이의 갈등으로 제한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60년대, 미국의 대중운동과 쿠바혁명 등에 자극을 받고, 대내적으로도 미국에 완전합병을 원하는 정치세력이 선거를 통해 집권함으로써 푸에르토리코 내부에서도 기존의 보수적 민족주의 경향의 지배담론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제 지식인들의 시선은 자신들 내부로 옮겨가게 된다. 따라서 70년대 이후의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진정한 자아 발견과 객관적 정체성 확립이었다. 그것을 위해 필연적으로 과거 역사를 되짚어보고 역사를 다시 쓰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다.

역사를 되짚어 보려는 소설은 식민초기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그나라의 기원이 되는 16세기 스페인 정복기를 되짚어 보면서 스페인의 식민지배가 오늘날 관점에서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문해 본다. 또한 수 세기에 걸쳐 지속되어 온 지배담론의 시각에서 벗어나 푸에르토리코 민중의 형성과정과 문화적, 계급적 갈등을 재해석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하나의 획기적 사건인 미국의 침공과 지배에 대해서도 재평가한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스페인에 편향된 백인 지배계급 중심의 역사를 거부하고 전복함으로써 푸에르토리코의 진정한 과거 모습을 재발견하고 있다.

이처럼 일군의 소설들이 신화화된 기존 역사를 전복시키고 있는가 하면, 어떤 소설들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역사상 존재하지 않은 가상

적 인물과 사건을 만듬으로써 역사를 신화로 포장하기도 한다. 호세 루이스 곤살레스와 로사리오 페레의 소설이 유럽 편향적인 지배계급의 담론에 숨겨져 있는 허위적이고 기만적인 요소들을 들추어 내고 그것으로부터 신화적 권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면, 에드가르도 로드리게스 홀리아의 소설들은 '흑인 민중의 봉기'라는 있지도 않은 상상적 역사를 만듬으로써 자국의 역사에서 배제되어 온 흑인의 존재와 위상을 회복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 과정을 통해 흑인피와 그 문화는 경멸과 무시의 대상에서 푸에르토리코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이자 한 축으로 새로이 자리매김 되는 것이다. 또한 흑인 반란이라는 신화적 역사의 창조를 통해 푸에르토리코는 실재 흑인혁명이 있었던 인접 카리브해 국가들과 동질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얻기도 한다.

나아가 그들의 정체성 재발견 작업은 푸에르토리코 섬이라는 좁은 경계를 벗어나 카리브해 전체 국가들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다. 특히 쿠바나 도미니카 공화국 등에서는 흑인과 흑백 혼혈이 민중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수 세기 동안 스페인계의 백인이 지배층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나라에서도 흑인피와 흑인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리매김은 자신들의 올바른 정체성을 밝히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동안 지배계급에 의해 조작된 허위의식 속에서 자신을 파악하고 있던 푸에르토리코 민중들은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긍정적 수용과정을 통해 자신의 참모습을 정립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 그 과정에서 어느 분야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문학이다. 특히 푸에르토리코 문학은 새로이 명명(命名)하는 작업을 통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다. 그것은 동시에 자신들의 바람직한 미래를 탐색하는 치열한 작업이다.

참고문헌

- Acosta-Belén, Edna, “Ideología e imágenes de la mujer en la literatura puertorriqueña contemporánea”, *La mujer en la sociedad puertorriqueña*, Puerto Rico, Ediciones Huracán, 1980.
- Beauchamp, José Juan, *Imagen del puertorriqueño en la novela*, Editorial Universitaria, Universidad de Puerto Rico, 1976.
- Blanco, Tomás, *El prejuicio racial en Puerto Rico*, con el estudio preliminar de Arcadio Díaz Quiñones, Río Piedras, Editorial Huracán, 1985.
- Cruz, Isabel Zenón, *Narciso descubre su trasero*, vol. 1, 2, Humacao, Puerto Rico, Editorial Furdi, 1975.
- Díaz Quiñones, Arcadio, *Conversación con José Luis González*, Edición Huracán, Inc. segunda edición, 1977.
- Díaz Soler, Luis M., “La esclavitud negra en Puerto Rico” en *Veinte conferencias*, Editorial del Departamento de Instrucción Pública, 1957.
- Díaz Varcárcel, Emilio, *Figuraciones en el mes de marzo*, Barcelona, Seix Barral, 1977.
- Ferré, Rosario, *Maldito amor*, México, Joaquín Mortiz, 1988.
- Girón, Socorro, “El tema del negro en la literatura puertorriqueña”, *Asomante*, Puerto Rico, junio, Año II, núm. 1, 1982.
- González, Anibal, “Una alegoría de la cultura puertorriqueña: *La noche oscura del Niño Avilés* de Edgardo Rodríguez Juliá”, *Revista Iberoamericana*, LII, núm. 135-136, 1986.
- González, José Luis, *El país de cuatro pisos*, Puerto Rico, Editorial Huracán, 1982.
- González, José Luis, *La llegada*, Puerto Rico, Ediciones Huracán,

1978.

- Gordon, Maxime, "Cultural Aspect of Puerto Rico's Race Problem", (Traducido por Ilsa Molinari Torr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15, n.3, 1950.
- Hernández Aquino, Luis, *La muerte anduvo por el Guasio*, Editorial Universitaria, Universidad de Puerto Rico, 1976.
- Maldonado Denis, Manuel, "En torno a *El país de cuatro pisos*", *Casa de las Américas*, Año XXIII, núm. 135, 1982.
- Manrique Cabrera, Francisco, *Historia de la literatura puertorriqueña*, New York, Las Américas Publishing Co., 1956.
- Méndez, José Luis, "La estructura social y la literatura puertorriqueña", *Casa de las Américas*, XX, núm. 115, julio-agosto, Habana, 1979.
- Ramos Rosado, María Esther, *La mujer negra en la literatura puertorriqueña: cuentística del 70*, tesis doctoral, Universidad de Puerto Rico, 1991.
- Rodríguez Juliá, Edgardo, *La noche oscura del Niño Avilés*, Editorial UPR, segunda edición, 1991.
- Rodríguez Juliá, Edgardo, *La renuncia del héroe Baltasar*, segunda edición, Editorial Cultural, 1986.
- Rodríguez Torres, Carmelo, *Veinte siglos después del homicidio*, Puerto Rico, Editorial Antillana, 1980.
- Silén, Juan Angel, *La generación de escritores de 1970 en Puerto Rico (1950-76)*, Río Piedras, Puerto Rico, Editorial Cultural, Inc., 1977.
- Trelles, Carmen Dolores, "La ambigüedad temática en Rodríguez Juliá", *El mundo* (suplemento En Grande), 6 de diciembre de 1987.